

보도시점	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		
담당부서	정책기획팀	담당자	임현아
이메일	lha8170@koreafilm.or.kr	연락처	02-3153-2058

보 도 자 료

배우 이혜영에게 직접 듣는 부친 이만희 감독, 그리고 <돌아오지 않는 해병>

한국영상자료원 7월 14일(금) 전쟁기념관에서 <돌아오지 않는 해병> 복원판 상영
상영 후 영화배우 이혜영 배우, 영상자료원장 김홍준 대담 진행



▲ <돌아오지 않는 해병> 4K 디지털 복원판

한국영상자료원(원장 김홍준, 이하 '영상자료원')과 전쟁기념관(전쟁기념사업회장 백승주)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 14일(금)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4K로 복원된 <돌아오지 않는 해병>(이만희, 1963)을 상영한다. 상영 후 영화배우 이혜영을 초청, 부친 이만희 감독의 인생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.

□ 영화배우 이혜영이 전하는 부친 이만희 감독, 그리고 <돌아오지 않는 해병>

이만희 감독의 1963년작 <돌아오지 않는 해병>은 한국전쟁 종전(1953년) 10년 후 제작된 작품으로,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영화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. 영상자료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본 작품을 4K 디지털 복원했고, 지난 6월

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처음 공개해 관객과 학계의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.

이번 상영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,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기 위해 영상자료원과 전쟁기념관이 공동으로 마련했다. 오전 9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무료 상영되며, <돌아오지 않는 해병> 상영 후에는 이만희 감독의 딸인 이혜영 배우를 초청, 김홍준 원장의 진행으로 부친 이만희 감독의 인생과 작품세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, 특별히 이번 상영에는 한국 주둔 미군 30명을 초청, 60년 전 한국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전쟁을 생생한 기록을 함께 관람하여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.

□ 미국 국방전문가와 함께 보는 <공동경비구역 JSA>

<돌아오지 않는 해병> 상영과 함께, 같은 날 오후 2시 미국 국방전문가와 함께 박찬욱 감독의 2000년작 <공동경비구역 JSA>를 관람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. 스티브 타프(Steve Tharp) 전 미 육군 중령을 초청, <공동경비구역 JSA> 상영 후 전문 해설이 진행되는 것. 이번 행사를 통해 영화 제작 당시 남북 군사분계선 및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.

한국영상자료원과 전쟁기념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상영회를 통해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의미를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상영회는 7월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영어 통역과 함께 진행되며, 모든 상영은 무료이다. 예약신청은 전쟁기념관 공식 홈페이지(www.warmemo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[참고자료]

**[한미동맹 70주년 기념] 한국영상자료원-전쟁기념관 공동주관
<돌아오지 않는 해병> <공동경비구역 JSA> 특별 상영회**

1. 일시 : 2023년 7월 14일(금)
2. 장소 : 전쟁기념관 내 이병형 홀
3. 입장료 : 무료
4. 상영작 : <돌아오지 않는 해병>(이만희, 1963), <공동경비구역 JSA>(박찬욱, 2000) 2편
5. 행사 세부내용

시간	내용	비고
09:30 ~ 11:20	<돌아오지 않는 해병>(복원판) 상영	
11:20 ~ 12:00	이혜영 배우 관객과의 대화 (진행 : 김홍준 영상자료원장)	영문 통역
14:00 ~ 16:00	<공동경비구역 JSA> 상영	
16:00 ~ 17:00	Steve Tharp(전 미 육군 중령) 해설 (진행 : 김홍준 영상자료원장)	국문 통역